

나는 유럽에서 나의 목장을 보았다



이 은 미
경기 포천여성낙농인

추 수철 눈에서는 한참 탈곡을 하고 밭에 있는 배추, 무의 목마름에 물주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하다. 지난 10월 27일부터 낙농육우협회가 기획한 여성낙농인 유럽선진지 연수에 참여하였다. 연수에 앞서 26일 여성낙농인 참가자 20여명은 사전교육을 받았다. 연수전문기관인 지역아카데미 강동규 박사가 강의를 통해 독일농장에서 견습생으로 실습할 때의 농장체험담을 이야기 하며 “많이 보고 느껴 견본의 폭을 넓히는 알찬 여정이 되길 바란다”며 ‘여권과 보따리를 사랑해’의 줄임말 ‘여보 사랑해’를 다함께 외쳤다.

한지영교수의 우유요리관련 특강으로 와인 마시는 방법, 치즈요리, 테이블 매너 등 프랑스 음식문화의 강의를 있었으며 방 배정으로 나의 룸 파트너는 강화에 사는 최혜경 언니가 되었다. 우린 전북에서 온 왕언니가 준비한 복분자를 마시며 본인들의 소개시간으로 낙농인의 만남이 하나가 되어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았다.

프랑스 파리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어둑어둑 해가 저물어 갔다. 썸머 타임 해제로 한국과 프랑스의 시차는 8시간이다. 세느강 “바또무슈” 선착장에서 우리는 유람선 창밖 파리의 야경을 감상했다. 푸른빛이 감싸는 조명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에펠탑을 보고 “와” 하고 탄성이 절로 나왔다. 다음날 우린 “떼제베” 고속열차를 타고 낙농가가 많이 산다는 시골마을 ‘브레타뉴’로 향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아침햇살이 눈부시게 빛났다. 드넓은 초지에 방목한 젖소들을 보니 나의 마음 까지도 여유로움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하루에 사계절이 있는 나라 프랑스!

여름은 무덥지 않고 겨울도 많이 추운 편이 아니라 낙농하기에 좋은 나라다. 다시 발걸음을 목적지

헨스 농업회의소에 도착하였다. 담당자 인솔 하에 프랑스 '낙농의 현황 및 미래전망!'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과 발전에 대해 토의하며 낙농가의 체험담을 들었다.

젊은 여성낙농인은 목장에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친정아버지께서 하시던 농장을 인수하여 남편과 2개의 법인농장을 운영한다며 수확기때는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지만 평상시에는 부부가 분담하여 남편은 밭일과 아침·저녁으로 착유를 담당하고 부인은 낙농학교를 졸업해 가정살림과 아이들 교육, 목장관리를 하며 본인이 택한 일에 만족하고 했다.

프랑스 여성은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어 그런지 당당한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나도 남편을 도와 목장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잠시 마음이 흐뭇했다. 앞으로 낙농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목장관리를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헝지스 국제 농수축산물 도매시장에 도착하였다. 수산시장, 축산시장, 화훼시장, 청과시장을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낙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농가를 찾았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낙농 체험농장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은퇴하였고 두 아들은 낙농법인을 운영하며 어머니와 아내는 낙농체험농가를 운영하고 있었다. 직접 만든 숙성된 와인에 치즈, 우유, 빵, 스테이크로 저녁식사를 만찬으로 준비해 주셨다.

별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 얼큰한 김치찌개가 그림다. 프랑스에서 4일 동안 로봇이 착유하는 농장, 유기농우유를 생산하는 농장, 치즈를 만들어 직접 생산 판매하는 농장을 견학을 맞추고 프랑스 여 아듀~

우리 팀은 독일행 프랑크푸르트로 향했다.

친환경 우수 농가는 마을 중심지에서 운영하였다. 바이오 가스시설을 갖춘 농장으로 낙농에 관련





된 상품을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었다. 나는 젓소들이 요가 하는 그림엽서를 구입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두 번째로 방문한 독일의 농가는 친환경낙농으로 분뇨를 이용해 바이오 가스시설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남자 주인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낙농업, 곡물농사, 바이오가스 3개의 법인회사를 운영한다며 얼마나 많이 잃을 했는지 손이 상했으며 젊은 여성 또한, 트랙터로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다. 낙농이 힘들고 어렵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고 우리도 열심히 부부가 합심하여 일하면 낙농업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유럽해외연수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한국낙농은 기술적인 면이나 위생적인 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목장경영관리, 노동, 자금, 회계, 기록관리를 체계적 교육하여 법적 보장이 향상되면 유럽여성낙농인들에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농축산 정책을 기획하

는 지자체에서의 가장 심각한 것은 분뇨처리 문제다. 지자체에서는 바이오가스 사업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수익도 올리고 축산업인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11월3일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과 목장의 젓소들에게 돌아옴으로서 7박 9일의 아쉬운 여정은 마쳤다. 짧지만 너무도 긴 여운을 남긴 이번 연수는 나의 추억 상자에 소중한 간직될 것이다. ☺

